

석유제품, 최대 수출품목 등극 유력

9월 수출액 53억달러로 24% 증가 ... 정유기업 수출 확대 주력으로

유럽의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부진 속에 석유제품이 나홀로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9월 석유제품 수출액은 52억55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했고, 45억달러를 기록한 반도체를 따돌리고 최대 수출품 지위를 유지했다.

2012년 1-9월 누적 수출액도 415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7% 늘어났으며, 반도체 368억달러, 일반기계 372억달러, 자동차 352억달러 등 다른 국가 주요 수출품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유제품이 국가 전체 수출액(484억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2%에 달했다.

석유제품의 수출 신장세는 1-9월 우리나라 수출이 세계 주요국의 수요 회복 지연으로 1.5% 감소한 가운데 달성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석유제품의 선전이 단순히 국제유가 상승의 반대급부라기보다는 내수 침체라는 벽에 부딪힌 국내 정유기업들이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석유제품의 수출동향을 보면 2006년 204억달러, 2007년 240억달러, 2008년 376억달러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230억달러까지 떨어졌다.

2010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다시 315억달러로 올라선 뒤 2011년 사상 최고액인 516억달러를 기록해 수출액수로 따진 순위는 선박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선박은 2012년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5위권 밖이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현재 추세대로면 연 수출액 550억달러 이상을 달성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은 물론 1위 수출품목 등극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0/08>